동북아 문화연구 제 14집 (2008) pp. 123 ~142

산포이론에 의한 제주방언의 음운적 특성 분석

조 성 문*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방언의 음운적 특성을 '산포이론(Dispersion Theory)'[1]을 적용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제주방언의 음운적 특성이 세대가 변함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이 개별적으로 변화를 보이는데, 이것을 하나의 통합된 변화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방언은 음운적으로 중앙방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음운론적 및 형태론적으로 보수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동안 국어학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제주방언은 모음체계에서 /ㆍ/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음운현상에서는 모든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서 제주방언은 그 특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젊은층의 언어에서 그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국어학자들의 관심권 밖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그나마도 그 관심 분야가 형태론이나 통사론 쪽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방언의 이러한 음운적 특성과 변화양상을 다시 한 번 고찰해 보고, 산포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조의 수를 최대화하려는 경향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설명하고자 한다. 즉, 노년층과 젊은층의 음운적 특성의 차이는 자음체계와 모음체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변화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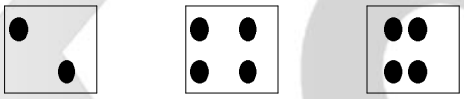
1) 산포이론은 Flemming(1995)에 기초하고 있는데 최적성이론에 음성학적 분석 방법을 접목시킨 이론이다. 특히 최적성이론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고 본 연구자를 비롯한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또한 1993년 이 이론이 처음 나온 이후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적성이론의 타당성을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Flemming(1995)의 '산포이론(Dispersion Theory)'은 Lindblom(1986)에 제시된 음성학적 음운분석 방법을 최적성이론에 접목시킨 이론이다. 산포이론에서는 음운적 대조의 적형성(well-formedness)에 관한 제약들이 제시되고, 음운체계와 관련되어 세 가지 기능적인 목표가 제시된다(안상철 2004).

(1) a. 대조의 정도를 최대화하라.
b. 대조의 명료성을 최대화하라.
c. 조음적 노력을 최소화하라.

이 원칙들이 최적성이론에 접목되는 과정은 (2)에서 제시된 것처럼 위의 기능적 목표가 서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Flemming 1996).

(2) a. b. c.



(2a)는 한 가지 대조만을 보이는 음소목록을 보여주는데 두 음소가 청각적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조의 정도가 최대화 되어 있다. (2b)는 동일한 청각 영역에 좀더 많은 음소를 포함하는데, 음소들이 조금 가깝게 위치한다. 그래서 대조의 정도를 최대화하는 목표와 대조의 명료성을 최대화하는 목표가 서로 충돌한다. 특히 조음의 편이성을 위한 제약도 명료성을 최대화하는 제약과 충돌한다. (2c)는 청각적 영역에서 주변에 있는 음소는 덜 주변적인 음소보다 더 많은 조음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장 축소된 영역으로 음소의 분포가 제한된다.

산포이론의 개념은 대조의 정도와 수에 대한 제약이 상호 충돌한다는 것과 음소목록이 이 제약들 사이에서 균형을 취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음운적 대조의 적형성에 관한 제약을 도입하고 세대별 음운의 교체가 음성적 자연성과 대조의 명료화 및 최대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음운 변이의 결과로 나타난

출력형은 음성적 자연성을 가진 제약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보이려는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체계의 적형성은 인접한 음운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패턴평가(pattern evaluation)'에 의해 해석되어야 함을 보일 것이다.

이 산포이론으로 모음체계와 구개음화 현상을 함께 살펴보려는 이유는 그 변화 방향에 대조가 보이기 때문이다. 모음체계는 대조의 수를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약해지고 있어서 7모음체계로 변화해 가고 있고, 구개음화는 오히려 자음의 수를 최대화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서 ㄷ 구개음화 현상만 남는 쪽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모음의 대조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자음의 대조 수를 늘리는 쪽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방언의 이러한 특성을 밝혀보려는 것이다.[2)]

2. 모음체계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주방언의 모음체계는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 ㆍ/의 9개이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미 육지에서는 사라져 버리고, 15세기 문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모음인 /ㆍ/가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제주도 사람들은 글자로 적을 때 이 모음을 쓰지 않지만 일상의 대화에서는 사용한다. 이 /ㆍ/의 음가는 /ㅏ/도 아니고 /ㅗ/나 /ㅓ/도 아닌 그 중간 위치의 음가이다(강정희 1988). 또한 /ㆍ/ 음은 어두의 환경에서 '여섯', '여덟'의 '여' 소리가 [ᄋᆞ]로도 발음된다. 이 소리는 /ㅕ/도 아니고 /ㅛ/도 아닌 그 중간 음가이다(현평효 1975).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 /ㆍ/가 소실되어 가고 있어서 점차 중앙방언의 모음체계에 근접하고 있다.

제주방언이 9모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ㆍ/의 존재와, /ㅟ/와 /ㅢ/가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9모

2) 심사위원이 지적한 대로 구개음화 현상만을 가지고 자음체계 전반을 다룬다는 것은 다소 일반화의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만 구개음화 현상이 제주방언의 자음체계에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지적 사항을 토대로 다른 자음 관련 음운현상까지 논의를 확대해 가고자 한다.

음체계는 노년층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3)]

(3) 9모음체계: 제주방언의 노년층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ㅡ	ㅜ
중모음	ㅔ		ㅓ	ㅗ
저모음	ㅐ		ㅏ	ㆍ

8모음체계는 제주방언의 중년층에서 나타난다. 노년층에서 발견되던 /ㆍ/가 사라지고, /ㅔ/와 /ㅐ/는 구별하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다음과 같다.

(4) 8모음체계: 제주방언의 중년층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ㅡ	ㅜ
중모음	ㅔ		ㅓ	ㅗ
저모음	ㅐ		ㅏ	

7모음체계는 제주방언의 젊은층에서 나타난다. 노년층에서 발견되던 /ㆍ/가 사라지고, /ㅔ/와 /ㅐ/를 구별하지 못하여 /ㅐ/가 상승하여 /ㅔ/로 합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앙 방언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제주방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방언의 젊은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7모음체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5) 7모음체계: 제주방언의 젊은층

3) 여기 이후에 제시하는 모음체계 및 구개음화는 강옥미(2003)를 참고로 하고, 본 연구자가 '2005년 4월'과 '2006년 4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과 '남제주군 대정읍'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ㅡ	ㅜ
중모음	ㅔ		ㅓ	ㅗ
저모음			ㅏ	

이렇게 모음체계에서 세대별로 변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산포이론의 대조에 관한 제약으로 설명하려 한다. 즉, 대조의 수를 최대화 하려는 경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 변화를 설명하려는 것이다.[4)]

3. 구개음화

제주방언에서는 음운적 구개음화 현상이 모두 일어난다. 가장 보편적인 ㄷ 구개음화를 비롯해서 '질다(長), 지레(身長)'나 '세(舌), 숭(凶)'처럼 ㄱ, ㅎ 구개음화 현상도 실현된다. 중앙방언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개음화는 /i/나 /j/에 선행하는 비구개음이 /i/나 /j/의 [-back, +high] 특성의 영향을 받아 같은 특성을 가진 구개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대국어에서 구개음화의 대상이 되는 자음을 유형으로 나누면 ㄷ 구개음화, ㄱ 구개음화, ㅎ 구개음화, ㄹ 구개음화, ㄴ 구개음화, ㅅ 구개음화 등이 있다. 그런데 ㄹ, ㄴ, ㅅ 구개음화는 음성적 실현에서 확인되지만 변이음의 영역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음운적 변이를 보여주는 ㄷ, ㄱ, ㅎ 구개음화에 대해서만 기술하려 한다.

우선 ㄷ 구개음화를 살펴보면 현대국어에서는 파생접사가 붙을 때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심사위원이 언급한 대로 제주방언과 달리 경남방언에서는 모음체계가 거꾸로 젊은 세대로 갈수록 6모음체계에서 9모음체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대조의 원리가 극대화되어 있는 6모음체계에서 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논문이 제주방언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하고자 한다.

(6) ㄷ 구개음화: 'ㄷ/ㅌ/ㄸ'이 'ㅈ/ㅊ/ㅉ'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굳이[구지], 미닫이[미다지], 해돋이[해도지], 밭이[바치] 등

ㄱ 구개음화는 제주방언을 비롯한 대부분의 방언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환경도 어두에만 제한되어 있다. 다만 중앙 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7) ㄱ 구개음화: 'ㄱ/ㅋ/ㄲ'이 'ㅈ/ㅊ/ㅉ'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1음절에서 많이 적용되나 2음절 이하에서 적용되는 예도 없지는 않다.
겨울[저울], 결국[절국], 기둥[지둥], 길[질] 등

ㅎ 구개음화 현상은 제주방언을 비롯한 남부방언에서만 실현된다.

(8) ㅎ 구개음화: 'ㅎ'이 'ㅅ'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ㄱ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1음절에서 적용된다.
힘[심], 혀[세], 흉[숭], 형[성] 등

이처럼 제주방언에서는 중앙방언과 달리 세 개의 구개음화 현상이 모두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젊은층에서는 중앙방언의 영향으로 인해서 ㄷ 구개음화만 일어나고, 다른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산포이론의 대조에 관한 제약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즉, 제주방언의 구개음화 현상은 자음 대조의 수를 최대화 하려는 경향 때문에 축소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모음체계의 변이와도 중요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5) ㄷ 구개음화를 제외한 나머지 구개음화는 1음절에서만 일어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점은 심사위원도 지적한 사항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때문에 더 젊은층에서 ㄱ, ㅎ 구개음화 현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점점 축소해 가는 환경이 더 이상 일반적인 음운현상으로 자리잡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4. 산포이론의 분석

4.1 모음체계

산포이론의 개념을 모음체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Flemming(1995)이 제시한 음소 사이의 적절한 대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대조(contrast)'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주방언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른 방언과는 다르게 중세국어의 모음 /ㆍ/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물론 노년층 이하에서는 그 모음이 사라지고 있지만, 저모음에 원순성이 존재하는 특이한 체계라고 하겠다. 그래서 9, 8, 7 모음체계의 변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10 모음체계를 입력형으로 할 때 각각의 변이를 대조의 수 최대화 제약과 원순모음의 발음에 관한 제약, 그리고 조음노력의 최소화 제약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설명하겠다.

우선 대조(contrast)의 개념을 모음체계의 변이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의 (9)와 같은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제약은 음소 사이의 대조 수를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제약이다 (Flemming 1995).

(9) Maintain Contrast: 음소들 사이의 대조는 모음체계의 변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제약은 자질에 따라서 하위의 몇 개 제약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Kim & Han(2000)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가 있다.

(10) Maintain Distinctiveness[F]
   a. Maintain Distinctiveness[round]: the more rounded, the more maintained.
   b. Maintain Distinctiveness[peripheral]: the more peripheral, the more maintained.
   c. Maintain Distinctiveness[long]: the longer, the more maintained.

그리고 이 제약들 사이의 등급을 Park(1997)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Kim & Han(2000)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1) lip-rounding 》 height, backness 》 length

그런데 여기에서 [peripheral]과 [long]의 자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대국어의 모음체계를 보면 오히려 [round]와 [high]가 더 중요한 자질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long] 자질은 현대국어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이호영(1996), 허웅(1991) 등에서도 젊은층의 말에서는 모음의 길이가 더 이상 변별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논의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ound]와 [high] 자질만을 채택해서 Maintain Contrast 제약을 다음과 같이 세분해서 활용하기로 하겠다.

(12) a. Maintain Contrast[round]: 음소들 사이의 원순성 대조는 모음체계의 변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b. Maintain Contrast[high]: 음소들 사이의 고저 대조는 모음체계의 변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조음의 특성상 대부분의 원순 모음들은 구강의 영역에서 후설 쪽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원순성이 F2를 압박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원순성이 F2를 낮추는 기능을 하여 후설모음은 원순성을 갖고 전설모음은 비원순성을 갖게 함으로써 최대한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언어에서 전설원순모음보다 후설원순모음이 발견되는 것이 더욱더 일반적이다. 특히 Peter(1984)에서도 모음의 변화에서 고저, 장단, 원순성, 전후설성들 사이에는 어떤 보편적 관련성이 있다고 했다. 전설 모음들은 비원순화되고, 후설모음은 원순화되는 것이 더욱더 일반적이고, 원순성은 일반적으로 고설과 중설 모음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후설개모음이 원순성에 의해서 구별되더라도, 개모음은 일반적으로 비원순화된다고 본다. 그래서 원순성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하였다.

(13) 원칙: a. 전설모음은 [-round]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
b. 후설모음은 [+round]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제약에 대해서는 Ahn(2001)에서 논의한 바 있다.

(14) *[+round, -back]: 원순모음은 후설 영역에 위치한다.
(15) *[-round, +back]: 비원순모음은 전설 영역에 위치한다.

두 제약 모두 같은 내용이므로 여기에서는 (14)를 활용하기로 하겠다.

한편 중세국어 시기의 모음 추이 결과 /ㆍ/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Ahn(2001)에서 밝힌 바와 같이 /ㅡ/가 청취 공간의 가장 주변적인 공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ㆍ/는 Peter(1984)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모음이 일반적으로 비원순화되기 때문에 소멸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음성학적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16) *[+round, +low]: 원순모음은 저모음 공간에서 압력을 받는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순성 저모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어 보편적으로 볼 때 매우 드문 일이다. 이 제약에 의할 때, 저설 영역에서의 /ㆍ/가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반면 모음의 변화를 유발하는 유표성 제약과 대조를 이루는 충실성 제약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음의 위치 자질의 변화를 제한하는 충실성 제약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McCarthy & Prince 1995).

(17) Ident-IO[F]: 입력형 [αF]를 가진 분절음은 출력형 역시 [αF]이어야 한다.[6]

6) 이 제약은 자질의 변화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음이 소실되는 것이니 Max-IO 제약을 써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음체계 상에서 문제가 되는 모음들은 소실보다는 융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Max-IO보다는 Ident-IO(F) 제약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조의 수를 최대화하려는 의도와 충돌하는 산포이론의 세 번째 원칙인 조음노력의 최소화는 화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Flemming(1995)에서는 특별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Lazy 제약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18) Lazy: Minimize articulatory effort.

그런데 이것은 추상적이어서 /ㅔ/와 /ㅐ/의 문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약으로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19) ɛ→e: 조음노력 최소화를 위해서 [ɛ]보다 개구도가 작은 [e]쪽으로 발화해라.

이제 지금까지 제시한 제약들을 가지고 실제 제주방언의 모음체계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다. 9모음체계는 전설모음의 원순성 대립이 사라졌으나, 저모음의 원순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체계라고 하겠다. 그래서 대조의 수 최대화 제약보다 전설모음의 원순성을 제한하는 음성적 보편 제약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 저모음의 원순성을 제한하는 제약은 아직까지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 제약 등급과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 *[+round, -back] 》Maintain Contrast[round] 》Maintain Contrast[high] 》Ident-IO[F] 》*[+round, +low] 》 ɛ→e

(21) 9모음체계

	*[+r,-b]	Main[round]	Main[high]	Id[F]	*[+r,+l]	ɛ→e
i y ɨ u a. e ø ə o ɛ a	*!*					*
i ɨ u ☞b. e ə o ɛ a ʌ		*		***	*	*
i ɨ u c. e ə o ɛ a		*!*		**		*
i ɨ u d. e ə o a		*!*	*	***		

위 표에서 보듯이 (21b)는 상위의 *[+round, -back] 제약을 지키고, Maintain Contrast[round] 제약을 덜 위반해서 최적형이 되었다. 그러나, (21a)는 *[+round, -back] 제약을, (21c), (21d)는 Maintain Contrast[round] 제약을 결정적으로 위반해서 최적형이 되지 못했다.

8모음체계는 전설모음과 저모음의 원순성 대립이 사라진 경우라고 하겠다. 그래서 대조의 수 최대화 제약보다 전설모음과 저모음의 원순성을 제한하는 보편 제약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 제약 등급과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2) *[+round, -back] 》*[+round, +low] 》Maintain Contrast[round] 》Maintain Contrast[high] 》Ident-IO[F] 》 ɛ→e

(23) 8모음체계

	*[+r,-b]	*[+r,+l]	Main[round]	Main[high]	Id[F]	ɛ→e
i y ɨ u a. e ø ə o ɛ a	*!*					*
i ɨ u b. e ə o ɛ a ʌ		*!	*		***	*
i ɨ u ☞c. e ə o ɛ a			**		**	*
i ɨ u d. e ə o a			**	*!	***	

위 표에서 보듯이 (23c)는 *[+round, -back], *[+round, +low], Maintain Contrast[high] 제약을 지켜서 최적형이 되었다. 그러나 (23a)는 [+round, -back] 제약을, (23b)는 *[+round, +low] 제약을, (23d)는 Maintain Contrast[high] 제약을 결정적으로 위반해서 최적형이 되지 못했다.

7모음체계는 전설모음과 저모음의 원순성 대립과, 전설모음의 고저 대립이 상실되어서 나타난 체계라고 하겠다. 그래서 대조의 수 최대화 제약보다 전설모음과 저모음의 원순성을 제한하는 음성적 제약과 전설모음의

조음노력 최소화 제약이 상위에 위치하게 된다. 그 제약 등급과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4) *[+round, -back] 》*[+round, +low] 》ε→e 》Maintain Contrast[round] 》Maintain Contrast[high] 》Ident-IO[F]

(25) 7모음체계

	*[+r,-b]	*[+r,+l]	ε→e	Main[round]	Main[high]	Id[F]
i y ɨ u a. e ø ə o ɛ a	*!*		*			
i ɨ u b. e ə o ɛ a ʌ		*!	*	*		***
i ɨ u c. e ə o ɛ a			*!	**		**
i ɨ u ☞d. e ə o a				**	*	***

위 표에서 보듯이 (25d)는 상위의 *[+round, -back], *[+round, +low], ε→e 제약을 지켜서 최적형이 되었다. 그러나 (25a)는 *[+round, -back] 제약을, (25b)는 *[+round, +low] 제약을, (25c)는 ε→e 제약을 결정적으로 위반해서 최적형이 되지 못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방언 모음체계는 제약 등급 상 대조의 수 최대화 제약 Maintain Contrast가 상위에 있다가, 원순성 모음의 발음에 관한 보편적 제약 *[+round, -back], *[+round, +low]와 조음노력의 최소화 제약 ε→e가 최상위로 단계적인 상승을 해서 7모음체계로의 변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방언의 모음체계는 대조의 수를 최대화 하려는 의도가 노년층에서는 존재하고 있지만 점점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 의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4.2 구개음화

산포이론을 제주방언의 구개음화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도 Flemming (1995)의 '대조(contrast)'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7] 순음, 치경음, 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이 필요한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Maintain Contrast의 개념을 여기에 적용하면 (26)과 같은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등급은 대조의 수를 최대화하는 원칙을 대조의 수에 따라 제약으로 설정한 것으로 Flemming(1995)의 제약을 수정한 것이다.

(26) Maintain Contrast ≥1 》Maintain Contrast ≥2 》Maintain Contrast ≥3 》Maintain Contrast ≥ 4 》… 》Maintain Contrast ≥n

이제 이 Maintain Contrast 제약 등급이 제주방언의 구개음화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자음이 순음, 치경음, 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중 하나가 되고, 모음(V)이 전설고모음(i) 인 Ci 형태의 단어들을 상정한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여섯 유형은 다음과 같다: $t_{1,2}$로 표시한 것은 그것이 변해서 구개음 č으로 변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이고, $č_{1,2}i$는 t_1, k_2가 동일한 구개음으로 변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27) Maintain Contrast 제약의 구개음화에 대한 평가

pi $t_{1}i$ či $k_{2}i$ hi	Con ≥1	Con ≥2	Con ≥3	Con ≥4	Con ≥5	Con ≥6
a. pi $t_{1}i$ či $k_{2}i$ hi						*
b. pi $t_{1}i$ $k_{2}i$ hi				*		
c. pi $č_{1}i$ $k_{2}i$ hi				*		
d. pi $t_{1}i$ $č_{2}i$ hi				*		
e. pi $č_{1,2}i$ hi			*			
f. pi či $č_{1,2}i$			*			

7) Ní Chiosáin & Padgett(2001)과 Padgett(2003)이 제시했던 Spacing의 개념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에는 Spacing의 개념보다는 Flemming(1995)에서 제시되었던 Contrast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7a)는 Maintain Contrast≥6 제약을 위반하지만, 모든 대조를 보인다. 이 (27a)는 통시적인 구개음화의 변화를 봤을 때 구개음이 등장하고 구개음화는 발생하기 전단계인 근대국어 초기라고 볼 수 있다. (27b)는 Maintain Contrast≥4를 위반하고, [pi], [ti], [ki], [hi]가 대조를 보인다. 이 단계는 구개음이 나오기 전인 근대국어 이전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순음, 치경음, 연구개음, 후음만의 대립이 존재한다. (27c)도 Maintain Contrast≥4를 위반하는데, [pi], [či], [ki]의 대조를 보인다. 이 단계는 현대국어의 중앙방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ㄷ 구개음화만 있기 때문이다. (27d)도 Maintain Contrast≥4를 위반하는데, [pi], [ti], [či]의 대조를 보인다. 이 단계는 육진방언에서 보이고 있다(곽충구 2001). ㄱ 구개음화가 더 잘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도 국어에 존재한다고 하겠다. (27e)는 Maintain Contrast≥3을 위반하고, [pi], [či], [hi]의 대조를 보인다. 이 단계는 ㄷ 구개음화, ㄱ 구개음화만을 보여주는 평안방언이라고 하겠다. (27f)는 Maintain Contrast≥3을 위반하고, [pi], [ɑi], [či]의 대조를 보인다. 이 단계는 모든 구개음화가 발생하는 제주방언을 비롯한 남부방언이라고 하겠다.

산포이론의 적용에 앞서 Maintain Contrast 제약과 대조를 이루는 충실성 제약이 요구된다. 즉, 구개음화와 관련된 위치 자질의 변화를 제한하는 충실성 제약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McCarthy & Prince 1995).

(28) Ident[place]: 입력형 [αplace]를 가진 분절음은 출력형 역시 [αplace]이어야 한다.

또한 구개음화는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 모두 일어나야 한다는 제약과 [coronal] 자질을 가진 자음이 {i, y} 모음을 만났을 때만 일어난다는 유표성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29) PAL(ATALIZE): 환경에 만족하면 구개음화를 일으켜라.
(30) CorPal+i: [coronal]을 가진 자음이 {i, y}를 만나면 구개음화가 나타난다.[8]

8) 러시아어를 위한 제약이 Rubach(2000a, b, 2003)에도 제시되어 있다.

이제 이 제약들을 가지고 구개음화 현상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근대국어 후반 이후에 구개음화 현상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서 대조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국어의 중앙방언에서는 어간의 치경음이 파생접사를 만나는 경우에만 구개음화가 발생하여서 대조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CorPal+i 제약이 상위에 남게 된다. 그 제약 등급과 실현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1) 중앙방언: CorPal+i 》Maintain Contrast≥3 》Maintain Contrast ≥4 》Maintain Contrast≥5 》Maintain Contrast≥6 》 PAL(ATALIZE) 》 Ident-IO(F)

(32) 중앙방언의 구개음화

pi t_1i ɕi či k_2i hi	CorPal	Con≥3	Con≥4	Con≥5	Con≥6	PAL	Ident
a. pi t_1i ɕi či k_2i hi	*!				*	***	
b. pi t_1i k_2i hi	*!		*			***	
☞c. pi $č_1$i k_2i hi			*			**	*
d. pi t_1i $č_2$i hi	*!		*			**	*
e. pi $č_{1,2}$i hi		*!				*	**
f. pi ɑ $č_{1,2}$i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2c)는 상위의 CorPal+i, Maintain Contrast≥3 제약을 지켜서 최적형이 되었다. 반면에 (32a), (32b), (32d)는 CorPal+i 제약을, (32e), (32f)는 Maintain Contrast≥3 제약을 위반해서 최적형이 되지 못했다.

반면 제주방언은 중앙방언과는 다른 제약 등급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ㄷ 구개음화 현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ㄱ, ㅎ 구개음화 현상이 모두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방언은 대조의 수를 최대화하려는 의도가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Maintain Contrast 제약의 단계가 중앙방언과는 반대로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제약 등급과 실현은 다음과 같다.

(33) 제주방언: CorPal+i 》Maintain Contrast≥6 》Maintain Contrast

≥5 》Maintain Contrast≥4 》Maintain Contrast≥3 》 PAL(ATALIZE) 》Ident-IO(F)

(34) 제주방언의 구개음화

pi t_1i ɕi či k_2i hi	CorPal	Con ≥6	Con ≥5	Con ≥4	Con ≥3	PAL	Ident
a. pi t_1i ɕi či k_2i hi	*!	*				***	
b. pi t_1i k_2i hi	*!			*		***	
c. pi $č_1$i k_2i hi				*!		**	*
d. pi t_1i $č_2$i hi	*!			*		**	*
e. pi $č_{1,2}$i hi					*	*!	**
☞f. pi ɕi $č_{1,2}$i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f)가 CorPal+i, Maintain Contrast≥4, PAL(ATALIZE) 제약을 준수해서 최적형이 되었다. 반면에, (34a), (34b), (34d)는 CorPal+i 제약을, (34c)는 Maintain Contrast≥4 제약을, (34e)는 PAL(ATALIZE) 제약을 위반했다.

그런데 제주방언의 젊은층은 (33)의 제약 등급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방언의 (31)의 제약 등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조음위치상 자음 대조의 수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모음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방언의 자음체계는 대조의 수를 최대화 하려는 의도가 노년층보다 젊은층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4.3 종합적 분석

앞에서 제주방언의 모음체계와 구개음화의 변화 현상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노년층에서 젊은층으로의 변화는 하나의 일관된 특징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볼 때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두 변화가 공통적인 하나의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 노년층의 모음체계와 구개음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조음위치별 자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35) 노년층

a. 모음체계: 9모음체계

i ɨ u

e ə o

ɛ a ʌ

b. 자음체계: 양순음(pi), 구개음(ʤ či)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음의 수가 9개로 많은 반면 조음위치에 의한 자음체계의 모습은 양순음과 구개음만 보이고 있다. 즉 자음의 수가 적어서 대조를 잘 보이지 못하니까 모음의 수를 늘려서 대조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

반면 젊은층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36) 젊은층

a. 모음체계: 7모음체계

i ɨ u

e ə o

a

b. 자음체계: 양순음(pi), 구개음(čli), 연구개음(ki), 후음(hi)

(36)에서 보는 것처럼 노년층에 비해서 모음의 수가 7개로 적은 반면 조음위치에 의한 자음체계의 모습은 양순음, 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의 모습을 보두 보이고 있다. 즉 모음의 수가 적어지면서 대조가 약해지니까 자음의 수를 늘려서 대조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언어에서 모음과 자음이 별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방언도 독립된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작용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언어의 변화는 항상 체계를 염두에 두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겠다.

5. 결론

지금까지 제주방언의 모음체계와 구개음화 현상을 제약 기반 이론인 최적성이론과 인지적, 음성적 정보를 음운 분석에 이용하는 산포이론으로 통합적으로 설명해 보았다. 제주방언은 음운적으로 중앙방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방언은 모음체계의 경우 대조의 수를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중앙방언보다 더 뚜렷했고, 반면에 구개음화의 경우 반대로 약화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모음체계와 자음체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서 제주방언도 중앙방언의 영향을 받아 그 모습도 점차 변화해 가고 있지만, 전통적 제주방언의 모습은 분명 중앙방언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37) 모음체계

a. 제주방언: *[+round, -back] 》 **Maintain Contrast[round]** 》 **Maintain Contrast[high]** 》 Ident-IO[F] 》 *[+round, +low] 》 ɛ→e

b. 중앙방언: *[+round, -back] 》*[+round, +low] 》 ɛ→e 》 **Maintain Contrast[round]** 》 **Maintain Contrast[high]** 》 Ident-IO[F]

(38) 구개음화

a. 제주방언: CorPal+i 》 **Maintain Contrast ≥6 》 Maintain Contrast ≥5 》 Maintain Contrast ≥4 》 Maintain Contrast ≥3** 》 PAL(ATALIZE) 》 Ident-IO(F)

b. 중앙방언: CorPal+i 》 **Maintain Contrast ≥3 》 Maintain Contrast ≥4 》 Maintain Contrast ≥5 》 Maintain Contrast ≥6** 》 PAL(ATALIZE) 》 Ident-IO(F)

이러한 음성학적인 대조를 통한 분석은 앞으로 모음체계나 구개음화 현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음운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논의를 더 진행해 갈 것이며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다른 방언에도 적용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옥미(2003) 한국어음운론, 태학사.
강정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 출판부.
곽충구(2001) 구개음화 규칙의 발생과 그 확산, 진단학보 92호, 진단학회.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안병희(1957) 중간두시언해에 나타난 t-구개음화에 대하여, 일석이희승선생송수기념논총.
_____(1978) 십오세기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안상철(2004) 개정증보 최적성 이론의 언어 분석, 한국문화사.
이기문(1972) 중세국어음운사, 탑출판사.
이명규(2000) 중세 및 근대 국어의 구개음화 , 한국문화사 .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 태학사 .
허 웅(1991)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현평효(1971) 제주방언의 음운, 교육제주 17호, 제주도교육연구원.
_____(1975) 제주도방언의 정동사어미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_____(1985) 제주도방언연구, 이우출판사.

Ahn, S. C(2001) A dispersion account on Middle Korean Vowel shifts, *Japanese. Korean Linguistics, 10*, 237-250.

Flemming, Edward(1995) *Auditory Representations in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UCLA.

Flemming, Edward(1996) Evidence for constraints on contrast: the dispersion theory of contrast, *UCLA Working Papers in Phonology* 1, 86-106.

Kim, H. S. and J. I. Han(2000) An Optimality-Theoretic Account of the Asymmetry in Korean Vowels: A Functional Approach.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5(2), 255-269.

Lindblom, Björn(1986) Phonetic universals in vowel systems, In J. Ohala and J. Jeager (ed.), *Experimental Phonology* , Orlando: Academic Press.

McCarthy, John and Alan Prince(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18, 249-384.

Ní Chiosáin, Máire and Jaye Padgett(2001) Markedness, segment realization, and locality in spreading, In Linda Lombardi (ed.), *Segmental Phonology in Optimality Theory: Constraints and Represent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8-156.

Padgett, Jaye(2003) The emergence of contrastive palatalization in Russian, In D. Eric Holt (ed.), *Optimality Theory and Language Change,* Dort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307-335.

Park, S. G(1997) *Australian English Pronunciation Acquisition by Korean and Japanese Learners of English* ,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Peter, H(1984) *Introducing Phonology*, London: Routledge.

Rubach, Jerzy(2000a) Backness switch in Russian, *Phonology* 17, 39-64.

Rubach, Jerzy(2000b) Glide and glottal stop insertion in Slavic languages: A DOT analysis, *Linguistic Inquiry* 31, 271-317.

Rubach, Jerzy(2003) Polish palatalization in Derivational Optimality Theory, *Lingua 113* , 197-237.

Abstract

A Dispersion Account on the characteristic of Jeju dialect phonology

Cho, Sung-Moon

This paper provides a new account on the characteristic of Jeju dialect phonology. For this purpose, we employ the frameworks of Optimality Theory(McCarthy & Prince 1995) and Dispersion Theory(Flemming 1995). The vowel system of Jeju dialect is undergoing rapid change. It was caused by structural factors, disappearing of opposition, merging or shift of phonemes. In Jeju dialect, each change of vowel system has a certain direction based on some factors. However, the point of change are definitely different in age. Though the process of change is somewhat different in each age, Jeju dialect has changed to an asymmetrical 7 vowel system from a symmetrical 9 vowel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palatalization of Jeju dialect has changed to /t/ palatalization from /t/, /k/, /h/ palatalization. Also, the point of change are definitely different in age. But for the change of palatalization, articulation place of consonants increase to bilabial, palatal, velar, glottal.

Therefore, I will argue that the final output of vowel and consonant system is a consequence of constraint interactions. Here I propose a pattern evaluation procedure for explaining the consequence of vowel and consonant system change. Finally, I show that the change of vowel and consonant system can be better described by dividing it into three and two stages and that each stage requires a different constraint ranking accounting for its change more precisely.

주제어 : 제주방언, 최적성이론, 산포이론, 모음체계, 자음체계, 구개음화, 패턴평가
Key words : Jeju dialect, Optimality Theory, Dispersion Theory, vowel system, consonant system, palatalization, Pattern evaluation

투고일 : 2008년 2월 27 일
심사일 : 2008년 3월 4 일
심사완료일 : 2008년 3월 12 일